

어떤 여자들

- * 날짜 : 12월 7일
- * 찬송 : 322장 (1,2절)
- * 기도 : 구역원 중에서
- * 말씀 : 누가복음 8:1-3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그 후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덱세스’는 ‘잇달아, 연달아, 차례대로’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은 순차적으로, 계획한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차근차근 계획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질문)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하신 일이란 무엇인가?

▶ 예수님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차별받는 사람과 차별하는 사람이다. 차별받는 사람은 그 시대에 죄인으로 분류되는 자, 즉 율법을 어긴 자, 세리나 창기, 병든 자나 장애가 있는 자, 이방인 등이었다. 반대로 차별하는 자들은 기득권을 가진 자,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도자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과 귀족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당시 죄인들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이었다.

(질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

▶ 주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은,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여인이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 많은 병고침의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질문) 왜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비천한 여인의 대명사라면, 요안나는 지체높은 귀부인에 속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열심당원이 있는가 하면, 민족을 배반하는 매국노 세리도 있었다. 주님 곁에는 이처럼 상반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질문) 신앙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 구역식구라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 찬송: 322장 (3절)

* 합심기도

1. 차별이나 소외된 사람이 없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도록..
2. 여호와를 기다림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삶의 변화를 통해 날마다 성숙해지는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2025년 구역식구들이 서로 밑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예배가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4.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작성: 이성실)